

특수물류 시장을 잡아라!

쥬피터,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한다

전통의 특송 및 포워딩 기업인 (주)쥬피터 익스프레스(대표 : 추동화)가 최근 사옥도 마련하고 인테리어도 말끔히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변화는 쥬피터호에 '추동화'라는 거목(巨木)이 승선하고부터 시작됐다. 추 사장은 국제특송 및 국제물류 비즈니스에도 입지적인 인물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물류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국제특송과 국제물류의 접목해 특수물류를 지향하겠다고 지난달 6일 밝혔다. 또 이미 글로벌화된 다국적 기업들을 따라잡기에는 늦었지만 특유의 장점으로 특수물류를 하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언급했다. / 김석용 기자



▲ 추동화 (주)쥬피터익스프레스대표이사

Q 늦었지만 대표이사 취임을 축하드리며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오.

A 특송입문 30년 동안 DHL에서 근무하면서 다방면의 특송을 배웠습니다. 특히 DHL단자스(현 DHL글로벌포워딩)에서 해운, 항공, 물류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세월 배웠던 것을 본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50여명의 직원 및 가족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쥬피터 익스프레스에 대한 소개를 하신다면.

A 쥬피터 익스프레스는 일본항공(JAL)이 설립한 '쥬피터 글로벌'이란 물류회사가 그 모태로서 17년 전 한국에 진출해 '쥬피터 익스프레스'란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해온 외국인 투자법인입니다.

쥬피터 익스프레스의 주 업무는 DHL, FedEx 등 대형 글로벌 물류회사를 제외한 100여 개 중소형 국제 특송회사들의 통관과 운송 대행업무(Express cargo Consolidator), 그리고

도착지 통관과 보세운송을 생략함으로써 항공특송 보다 한단계 더 빠르게 사람이 직접 물건을 들고 항공기에 탑승해 원하는 지역의 수요자에게 배달해 주는 인편(人便) 특송(Super Courier), 3자 물류(3PL), 그리고 고가의 자동차 부속이나 보석류, IT 나 BT 관련 샘플이나, 위험품(Dangerous Goods) 등을 취급하는 특송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그리고 고가의 자동차부품 운송물류는 월드큐리어와 마켄(MARKEN)이란 회사가 양분하고 있는데, 쥬피터 익스프레스는 한국의 마켄총 대리점을 맡고 있습니다. 또 수퍼 큐리어 서비스를 위해 10여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소지하고 해당 국가로 날아가 직원 원하는 수취인에게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Q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A 세계 물류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1998년을 기점으로 대형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몸집을 부리는 경쟁을 하는 이유는 물류산업을 더욱 스피드화, 정확화, 거대화, 글로벌화 하여 가격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갖추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편에선 소득 증대, 문화 교류, 유전공학 등의 발달로 인해 고가의 귀중품이나 보석류, 혈액 샘플, 인류의 자산인 역사유물, 전시작품, 생물연구용 세포나 유전자 샘플, 연구용 동식물, 고가의 자동차부품, 위험품 등 특이한 제품들을 국제간 운송하는 특수물류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물류 전문가들은 전체 물류시장을 100으로 볼 때 특수물류는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특수물류 분야는 품이 너무 많이 들고, 특수 장비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손을 대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수물류는 물류분야에서 '떠오르는 태양' '물류의 블루